

2026. 5. 9.(토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6년 5월 8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서울대공원 조경과

경영관리부장

이현주

02-500-7001

조경과장

강종희

02-500-750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3쪽

관련 누리집
(메뉴)

<https://yeyak.seoul.go.kr/web/main.do>

서울대공원 ‘식물원 속 동물원, 할아버지와 나의 식물원 이야기’ 특별전시 운영

- 5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서울대공원 전시온실에서 특별전 진행
- 세대공감형 스토리로 창경원~남산으로 이어지는 식물원의 역사와 가치 전달
- 식물-동물 통합형 콘텐츠와 식물원 자연광 환경을 활용한 몰입형 전시 연출

서울대공원 5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전시온실에서 특별전시 「할아버지와 나의 식물원 이야기 : 식물원 속 동물원」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전시는 창경원부터 남산을 거쳐 현재 서울대공원 식물원으로 이어지는 식물원의 역사와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.

- ‘할아버지와 손주’의 대화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, 식물원의 의미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고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낸다.
- 전시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전시 기간 중 매주 금~일요일 일일 3회 전시 해설 프로그램 ‘식물과 동물을 함께 만나는 특별한 식물원 탐방’을 운영하며,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.

- 정적인 식물전시에서 벗어나, 식물 속에 숨겨진 동물의 모습과 생태적 연결고리를 시각적으로 풀어낸 역동적인 통합형 콘텐츠를 선보인다.
 - 11종의 식물자원과 연계된 동물 이야기를 함께 구성하여, 형태적 유사성과 서식 환경 공유 등 다양한 생태적 연결 요소를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.
 - 이를 통해 관람객은 식물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, 단순 관람을 넘어 교육적 의미와 흥미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.
 - 또한 해당 식물과 연계된 동물의 위치를 함께 안내하여 식물원과 동물원을 연계한 통합 관람을 유도한다.

- 서울대공원 온실의 가장 큰 특징인 풍부한 자연광을 적극 활용하여 전시 몰입도를 높이고,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관람 요소를 더했다.
 - 스테인드글라스 형태의 동물 소품을 배치하고,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빛의 투과로 나타나는 색채와 그림자가 식물과 어우러지도록 연출했다.
 - 아울러 관람객이 온실 곳곳에서 직접 동물 소품을 찾아보는 ‘식물원 속 숨은 동물 찾기’ 를 통해 전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.

-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“이번 전시는 식물과 동물, 이야기를 결합한 콘텐츠를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 공감을 동시에 이끌어내고자 기획됐다”며, “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연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서울대공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”고 덧붙였다.



특별전시 안내



특별전시 관람



식물-동물 통합형 관람



식물원의 역사 안내



스테인드글라스 코끼리



스테인드글라스 나무늘보



스테인드글라스 동박새



스테인드글라스 맨드릴원숭이